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1. 일 시 : 2014.01.15(수) 15:00 ~ 17:10
2. 장 소 : 대학본부·경영관 303호
3. 참 석 : 8명(위원장 정태준, 위원 서창갑, 위원 최인수, 위원 강인호,  
위원 신두철, 위원 김영봉, 위원 김진호, 위원 박상준)
4. 불 참 : 0명
5. 회의안건 : 1.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  
(2014학년도 계열별 등록금/군사학과 등록금/대학원 등록금)  
2. 학교비 예산(안)심의  
(학교비예산/시설비 예산/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분 예산)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전년도 본예산 최종추경예산 전기이월금 차이, 전년도 본예산 최종  
추경예산 기금회계전출금 차이)

### ◆ 위원장 정태준

2차회의때 220명 결손보전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2%에 대해 말씀드렸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5%를 제시하여 의견차이가 크다. 오늘은 의견을 차이를 줄여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자료를 충분히 열람한 걸로 알고 있다. 5% 인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라고 하다.

### ◆ 위원 김영봉

학자금대출 관련으로 대학생 채무자가 많은게 현실이며 우리학교는 탈적율도 높다. 경제적 이유로 탈적율이 높은걸로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탈적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학자금대출자가 매달 3.4만원 연간 50만원정도 부담이 있다. 5% 정도 인하하면 대출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다.

### ◆ 위원장 정태준

중도탈락은 학생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교우관계, 학문적으로 어려워 적응실패, 경제적문제 등 복합적요인이 있다. 우리 학교는 편입생 및 복학생관리 등 탈적율을 줄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보다 학생들의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서비스센터를 두고 제도적으로 탈적율을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하고있다고 하다

### ◆ 위원 서창갑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탈적율을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인근대학보다

탈적율이 높은건 사실이다. 학생처에서는 휴학시 경제적 문제로 휴학 상담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학생처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우리학교는 입시경쟁율은 좋으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편이었지만 최근 개선되고 있다. 학년별로 탈적사유가 다르지만 1학년은 주로 적성문제, 2학년은 경제문제, 3학년은 편입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다.

### ◆ 위원 김영봉

학과 적성의 문제는 전과도 있지 않은가? 경제문제, 충성도, 학생의지 등 등록금 부담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 위원 서창갑

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등록금인하가 전체학생대상으로 하지만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곤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이 둘은 접근방식이 다르다. 등록금감액하고 학교재정지출을 무조건 줄여라고 하는 것은 인하근거로 부족하다. 대안적 제시가 필요하고 학교도 국가장학금지원 및 재정지원사업 관련 영향으로 등록금 2%인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본다. 현실적으로 동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다.

### ◆ 위원장 정태준

대학은 적절한 교육비를 투입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정투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정말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는것을 이야기 해주면 학교에서도 재검토 해볼 것이다라고 하다.

### ◆ 위원 박상준

학교에서는 일반기업체처럼 이익 창출해야하는 곳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어느쪽이든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재정수입이 계속 줄고있는 상황임으로 세출부분을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하다.

### ◆ 위원 서창갑

경제적문제로 탈적한 학생은 연차별로 계속 줄고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장학금 영향이 크다고 하다.

### ◆ 위원 강인호

매년 등심위 회의때마다 장학금으로 생색내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당연히 주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2%인상을 주장하였지만 학교의 의지가 아닐꺼라 생각한다.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는데 임금은 올라간다. 보수인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위원 박상준**

등록금 결정에 있어서 보수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최저임금이나 학교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등 접근이 쉽지않은 문제라 생각한다.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 등)의 축소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 **위원 서창갑**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만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성 경비는 많이 삭감하였다고 이전회의때 들은걸로 알고있다고 한다.

◆ **위원 김진호**

보수는 경영상의 절대적인 위험이 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라고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의견차이를 좁혔으면 한다라고 한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들도 고통이 있겠지만 학교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소모성경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본연의 기능을 다하기위해 투명하게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신뢰해달라라고 한다.

◆ **위원 서창갑**

학우들의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이해한다. 올해 학생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6억 증액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위원장 정태준**

올해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어질 것이다. 220명 결손분으로 2%인상을 주장하였지만 전략적으로 국가장학금2유형, 재정지원사업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동결(안)을 제시한다라고 한다.

◆ **위원 강인호**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면 모두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동명대상 경비가 왜 학교비로 사용되는지,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묻는다.

◆ **위원 최인수**

동명대상은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시교육청,부산은행이 공동제정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크며 많은 참석자들 가운데 기업체관련자도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취업관련 홍보도 될수 있기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 **위원 서창갑**

수상자들은 발전기금 기탁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 타대학 없지만 학교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 **위원 김진호**

부산에 늘원문화상,부산시 문화상 등 여러 상들이 있다. 일반홍보 행사보다는 사회적 문화행사로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본다라고 한다.

◆ **위원 강인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안되고 있다라고 한다.

◆ **위원 신두철**

학생, 학교 모두 입장이 있겠지만 “등록금” 키워드만 보고 가겠다. 천원이든 만원이든 인하를 해야한다라고 한다.

◆ **위원장 정태준**

학교로서는 동결을 해도 정원감축으로 인한 결손이 생긴다는 걸 다시한번 고려해달라라고 한다.

◆ **위원 서창갑**

모든 학생에 대한 일괄 등록금 인하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등록금 인하가 되면 그만큼 장학금도 줄게 된다고 한다.

4시 07분에 정회하고 4시15분에 재개함

◆ **위원장 정태준**

학교는 동결(안)을 말씀드렸다. 학생들의 최종안을 말해달라라고 한다.

◆ **위원 강인호**

장학금을 전제학생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 **위원 서창갑**

장학 실무자와 장학위원회 등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한다.

◆ **위원 강인호**

전체학생 장학금 지급과 졸업앨범 및 학생요청사업을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동결안을 제시한다라고 한다.

◆ **위원 최인수**

학생요청사업은 미리 협의해달라. 총장님의 학생중심 경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이 있기 전 선제적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년도처럼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배정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들의 요구가 한정된 예산을 벗어나면 쉽지않다라고 하다.

◆ **위원 서창갑**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문제가 안될 것 같다. 학생측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요구할 것이라 본다. 요구한 내용은 학교측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다.

(예산기획팀장 : 전년도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대부분 수용했다. 올해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 요구가 많을 경우 예산부족분을 보전할 여력이 없어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다. 다만 사업시기가 배려만 된다면 방법을 찾아볼것이다라고하다)

◆ **위원장 정태준**

좋은의견에 감사드린다. 학생들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위원들에게 묻다.

◆ **위원 일동**

전원 동의하다.

◆ **위원장 정태준**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입학금 및 수업료는 동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차기회의는 1월17일(금) 15:00에 개최키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기획처	처장	정태준	정태준
학생처	처장	서창갑	서창갑
사무처	처장	최인수	최인수
총학생회	회장	강인호	강인호
총학생회	부회장	신두철	신두철
총대의원회	의장	김영봉	김영봉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호	김진호
전문위원	세무사	박상준	박상준

간사 김승우 (서명)